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연구소

2025.12.

통권 제104호

발행인 | 황옥경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장애가 있는 부모의 양육현실과 힘 더하기

I 장애인 부모 양육 지원의 현주소와 한계

장애가 있는 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돌봄환경의 제약, 제도적 미비, 사회적 편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함.

현 지원체계는 장애인 부모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며 이러한 현실은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담을 주어 자녀의 성장·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장애인 부모에 대한 정책 지원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 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시·도 단위로 1개소 이하만 운영되고 있음.¹⁾ 또한 일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장애인 산모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장애인 산모의 입실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²⁾.
- ▶ 출산 이후 장애인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양육·돌봄 지원 또한 여성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음. 예를 들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은 자녀양육을 포괄한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이용 대상이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음. 이처럼 장애인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양육 돌봄 지원은 미비하며, 가족 내 돌봄 부담 완화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함.

이에 본고는 장애인 부모가 직면한 문제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힘을 더해갈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1〉 장애인 부모 임신·출산 및 양육·돌봄 지원 정책

구분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 임신·출산 등 취약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
양육·돌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주: 장애인 부모 임신·출산 및 양육·돌봄 지원 정책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책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4).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 부모 힘 더하기 육아지침서. pp.108~146.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Ⅲ):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김자연·배윤진·최윤경·전보영·김경은·윤소연, 2024)」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총 15개 유형 가운데 원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부모의 장애 유형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로 제한하여 살펴보았기에 본고에서도 이들 4개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함. 또한 본고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은 아님.

1)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 홈페이지. 장애친화 산부인과.
https://www.nrc.go.kr/portal/html/content.do?depth=dw&menu_cd=05_01_03 (인출일: 2025. 9. 3)
2) 김나영·김아름·김자연·김희수(2024).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II 장애인 부모의 양육 실태

부모의 장애 유형에 따라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도 상이함

장애인 실태조사(2023)를 통해 장애인 부모의 양육 실태와 어려움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함. 다만, 장애인 부모가 겪는 복합적인 양육 부담을 충분히 조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 장애인 부모가 본인의 장애로 인해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는 73.0%가 지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시각장애 부모는 22.7%로 응답함.
- ▶ 장애가 있는 부모들은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양육 시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많이 언급함.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 부모의 30.2%는 양육 관련 정보 부족을 주요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으며, 청각장애 부모의 41.1%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적장애 부모 역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함. 한편,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 부모는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주변의 편견과 시선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장애 부모의 경우 주거 환경 여건 부족을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14.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 장애인 부모의 장애 유형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와 장애로 인한 애로 사항

단위: %

자녀 양육 어려움	구분	장애 유형 ³⁾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지장 없다	73.3	77.4	66.7	27.0
	지장 있다	26.8	22.7	33.3	73.0
	계**	100.0	100.0	100.0	100.0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자녀양육/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29.2	21.6	23.9	9.1
	주거 환경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1.7	1.1	0.0	14.6
	아이를 돌볼 사람, 시설 부족	2.8	1.7	0.0	5.6
	양육할 충분한 시간부족	7.0	6.0	3.6	0.0
	양육 관련 정보 부족	2.7	2.8	3.4	30.2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힘들어서	3.2	1.3	5.1	5.3
	주위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5.4	7.2	0.0	0.0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0.4	0.0	41.1	27.8
	기타	0.0	0.0	0.0	0.0
	어려움 없음	47.6	58.4	22.8	7.4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2023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6.8%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와 장애로 인한 애로 사항이 조사되었음.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해당 문항의 응답지는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를 '지장 없다'로 통합하였으며, '약간 많다'와 '매우 많다'를 '지장 있다'로 통합하여 표를 제시함.

**문항별 개별 응답지의 비율 값의 합은 0.1% 수준으로 초과 혹은 미만인 경우가 있으나 오차로 인한 현상으로 일괄 100.0%로 정리함.

출처: 이민경·오옥찬·오미애·김진희·황주희·조휘래·이한나·강동욱·권선진·백은령·윤상용·이선우(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3)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II):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김자연 외, 2024)」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원 과제에서 장애인 부모의 장애 유형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발달장애)로 제한하여 살펴보았기에 본고에서도 동일 유형을 적용하여 살펴봄.

장애인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자녀 양육과 훈육 과정에서 일반 부모들이 겪는 고민과 어려움에 더하여,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비롯된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사례조사⁴⁾를 토대로 장애 유형별 어려움, 의사소통과 돌봄 부담, 경제적·사회적·정서적 부담을 살펴봄.

- ▶ 시각장애인 어머니는 자녀 양육 전반에서 시각장애로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임을 주요 어려움으로 토로
 기저귀 갈 때도 친구는 보니까 이제 물티슈로 애기가 응가하면은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잘 물티슈로 바로바로 닦더라고
 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걸리긴 한데다가, 물티슈로 닦아도 이제 어디가 정확히 잘 닦여져 있는지 모르니까 항상 저는
 그냥 씻겨거든요...(중략)... 아기한데 직접적인 손톱 발톱 잘라주는 걸 한 번도 못 해줬어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그런 아이가 어디에 뭐가 낫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제가 모르죠(시각장애 어머니)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지만 그냥 좀 안전을 위해 집에 있거든요. (중략)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을 쓰는 그게 다를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뭔가 한 번 안아도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지체장애 어머니)
- ▶ 청각장애인 부모는 대부분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함.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수어를 익히도록
 하여, 정서적 표현의 어려움을 수어를 통해 극복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기도 함.
 말이랑 수어 동시에 같이 사용합니다. (중략) 문제가 있긴 합니다. 둘째는 첫째가 없을 때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한 게 있습
 니다. 둘째는 수어를 좀 몰라서 대화가 잘 안되고요. 단어로만 말합니다. 많이 어려워해서 이제 필담으로 가끔 그렇게 해서 대화
 를 하고 있습니다.(청각장애 어머니2)
 저한테 대화하는 데 가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가 너무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안한 마음
 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하거든요(청각장
 애 아버지)
 보청기 때는 거의 못 알아들었거든요. 입 모양 계속 봐도 세 번 더 말해달라고. (중략) 반반[수화와 구화]? (중략) 저는 인공 와우
 하기 전에 수화 거의 많이 했는데 와우 하고 나니까 수화 안 하는 것 같아요. (청각장애 어머니)
- ▶ 영아기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는 기본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이나 놀이에도 관심과 염려를 나타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교육·보육기관 이용, 또래와의 관계 형성 등과 관련하여 관심과
 고민을 보임.
 제가 장애인이라서 그쪽(아이의 성장·발달에 대한 관련 정보들) 찾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복지관 같은 데다 전화해 보고,
 이렇게 아기를 엄마 부모 장애인이고 자녀는 비장애인인 아기를 영유아 모여서 이런 놀이 체험했던 것도 그런 데도 거의 없거든
 요(지체장애 어머니2)
- ▶ 사례조사 결과,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담의 수준이 달랐음.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어머니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양육부담을 크게 느낀 반면, 지체장애 어머니는 신체적 부담이 컸음. 또한
 지적장애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
 훈육에 대한 부담이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3〉 사례조사의 장애인 부모들의 양육부담 수준

단위: %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	훈육 부담
시각장애 어머니	2.7	2.0	2.7	2.0	1.7	2.0
청각장애 어머니/아버지	2.0	1.7	3.3	3.3	2.0	2.3
지체장애 어머니	3.0	2.0	2.5	2.5	2.5	3.0
지적장애 어머니/아버지	2.0	3.0	2.3	3.3	2.8	2.8
전체	2.3	2.3	2.7	2.8	2.3	2.5

주: 1) 양육부담척도는 4=매우부담됨, 3=부담됨, 2=부담되지 않음, 1=매우 부담됨으로 평정하였음.
 2) 사례 5와 8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양육 부담 척도를 수집함.
 자료: 김자연 외(2024).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Ⅲ):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05의
 〈표 Ⅲ-3-1〉을 재구성함.

4) 본고의 기초가 되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Ⅲ):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김자연 외, 2024)」
 에서 장애인 가구 10사례를 발굴하여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고에 활용함.

장애인 부모를 위한 양육 지원제도는 장애 유형별, 아동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격차를 보이며 장애부모 양육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함

사례조사를 통해 수집된 제도 활용 실태를 길버트와 테렐(Gillbert & Terrell, 2013)의 정책 분석틀을 적용하여 급여 자격(Allocation), 급여 형태(Provision), 전달 체계(Delivery), 재정 조달(Finance)로 분석하여 한계를 파악함.

- ▶ 급여 자격: 사례 가구에서 활용한 지원 정책들은 대다수 장애 요건이 부합되어야 활용 가능함.
- ▶ 급여 형태: 현금 급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주로 다양한 형태의 현물급여(양육 지원, 소통 지원, 물품 및 바우처, 주거지원, 교육 지원, 상담 및 자조 지원) 정책으로 제공되고 있음.
- ▶ 전달 체계: 교육 지원, 상담 및 자조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사업은 주로 지역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⁵⁾을 통해 전달됨. 반면, 등록 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서울시 홈헬퍼 서비스⁶⁾, 그리고 대다수의 현금 급여는 공공(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전달됨.
- ▶ 재정 조달: 중앙정부 재정은 활동 관리자 및 건강 관리자⁷⁾ 파견을 비롯하여 초기 양육에서 초등 학령기 양육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가 더 넓고 다양함.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시의 경우 홈헬퍼를 통해 9세 아동까지 장애 부모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타 지역의 경우 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재가 돌봄 형태의 서비스 지원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어 장애 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의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함.

III 장애인 부모를 위한 양육 지원 정책 제도 활용에 따른 개선방향

장애인 부모는 정보 접근과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주로 동일 장애 유형의 지인, 홈헬퍼, 지역장애인복지센터 담당자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경향을 보임

장애인을 위한 부모교육은 일부 장애인복지관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됨. 장애 유형을 고려한 부모교육과 서비스 제공자 대상 지원정책 및 관련 제도가 필요함.

- ▶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비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 부모의 참여에 제약이 따름. 이에 따라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 지자체별로는 서울시의 홈헬퍼 서비스와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는 양육서포터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모 모임을 통해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⁸⁾.
- ▶ 서비스 제공자(홈헬퍼 등)에 대한 전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가구 방문 서비스의 확대 지원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장애인 부모 대상 자녀 양육 지원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며, 장애 유형별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장애인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제도를 급여 자격, 급여 형태, 전달 체계, 재정 조달 방식에 따라 분석하여 도출된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시사점은 <표 4>와 같음.

- ▶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이 도입되었으나, 자녀가 취학 연령에 도달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학 시점에 양육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 장애인 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육 지원, 상담, 자조 활동은 공공과 민간 전달 체계가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5) 한국의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사업(교육 지원, 상담, 자조활동 지원 등)은 공공이 책임지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임. 즉 교육지원·상담·자조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사업은 '지자체(공공)가 책임지고,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비영리기관이 위탁받아 운영함.

6)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부모 가정에 방문 돌봄 제공하며, 서울시 홈헬퍼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산후조리, 자녀 양육, 가사 지원 제공함. 그러나 두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책이 장애아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부모 단독 지원은 제한적임.

7) 건강 관리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 가정에 파견되는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며 일상용어로 산후관리사 또는 산후도우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

8)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II):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김자연 외, 2024)」에서 장애인 가구 10사례를 발굴하여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고에 활용함.

부모들이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 특히 장애인 부모 양육 지원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하며, 부모가 직접 자녀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 인력이 이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 다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발휘하는 역량은 장애와 장애 부모에 대한 이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경험 등 개인별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례관리와 교육 등을 통한 인력 역량 강화가 필요함.

〈표 4〉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활용한 장애인 부모 지원 정책 활용의 제한점과 시사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급여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별 지원제도는 매우 제한적 • 장애 유형에 따라 임신 및 출산기, 양육기에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장애 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제도 검토 필요 	전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부모의 육아를 위한 케어매니저 역할 도입이 필요 • 아동의 발달 시기에 맞는 표준화된 사정 체계 및 지침서 개발 • 아동의 발달 시기를 고려한 수당 및 복지정책 연계가 필요함 • 전사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케어매니저의 단계적 도입 검토 필요
급여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선호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보장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부모가 자녀의 연령대에 맞는 가족단위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획일화된 급여 형태를 벗어나 가구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형태 검토 필요 	재정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는 초기 양육기부터 아동기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 역할 •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관 등 특정 사회서비스 사업에 집중화 • 장애 가구를 위한 양육 지원 서비스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이 요구됨. • 아동기 전반에 걸쳐 특수 대상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자료: 김자연 외(2024).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Ⅲ):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127-143 내용을 요약 정리함.

장애인 부모 지원은 일상 속 자녀 양육을 돕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 장애인 부모가 일상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 기술 및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확대와 부모의 장애 유형과 가족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상담·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장애인 부모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자녀 발달을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 장애인 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 지침서가 부재함. 자녀 양육 과정에서, 특히 지적장애 부모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아동의 영유아기를 포함한 아동의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하는 등 부모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양육 지침서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지침서는 장애인 부모가 직접 활용하거나 지원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단계별 정보, 지원정책 및 제도 안내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IV 장애인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방안과 정책적 제언

장애인 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과 방향성 제언

장애인 부모의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 및 비용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공적 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 ▶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를 설계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 부모와 그 가구의 욕구와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아동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발달상의 문제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부모의 장애 유형에 따른 자녀 양육 어려움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설계가 가능해야 함.

- ▶ 장애인 부모를 위한 공적 양육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녀 돌봄에 필요한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함.

장애인 부모 양육 지원 체계의 개선과 강화 방안

장애 유형별 특수성 반영, 양육 지원의 연속성 확보, 전달체계 간 연계 및 접근성 개선, 지원 인력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부모 맞춤형 지원 체계 설계 마련

- ▶ 장애인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제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장애 유형별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 유형과 양육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 현행 현금성 지원은 가구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자녀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녀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취학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교육 지원, 상담, 자조 활동 등 장애인 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공공과 민간에서 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원 활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 간의 효율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장애인 부모가 필요한 지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시켜야 함.
- ▶ 장애인 부모 양육 지원은 성장과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하며, 부모가 직접 자녀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 인력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발달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 확대가 필요함.

장애인 부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지침서 개발 및 보급

육아정책연구소는 장애인 부모를 위한 종합적 육아지침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 부모 힘 더하기」를 개발함.

- ▶ 장애인 부모를 대상 자녀 양육 안내서는 대부분 임신과 출산에 국한되어 있고 자녀 돌봄과 양육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임. 자녀의 월령별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발달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공이 필요한 상황임.
- ▶ 자녀의 출생부터 성장과 발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침서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장애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모든 장애인 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 이러한 목적 아래, 육아정책연구소는 장애인 부모를 위한 종합적 육아지침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 부모 힘 더하기」를 개발함. 이 지침서는 장애인 부모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일상 돌봄, 교육·정서 지원, 위기 상황 대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장애인 부모의 지침서 활용은 부모 스스로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됨.

김자연 부연구위원 kimjayeun@kicce.re.kr

Appendix

‘장애 부모 힘 더하기’ 육아지침서 구성 및 활용

아동의 월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육아지침서 구성

- ▶ 육아지침서는 총 세 개의 장과 하나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3장 ‘장애 부모 Q&A’는 사례 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저자들이 일부 각색하여 구성하였음.

〈부록 표 1〉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부모 힘 더하기’ 육아지침서 구성

목차	주요 내용
I. 장애 부모의 부모됨 1. 부모됨의 첫단계: 장애를 가진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2. 부모됨의 두 번째 단계: 부모됨에 대한 이해 3. 부모됨의 세 번째 단계: 부모됨의 실천적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됨’에 관한 내용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 장애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고민과 걱정을 ‘부모됨’ 준비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음.
II. 자녀의 성장 발달을 이해하고 돕기 1. 월령에 따른 아동 발달 특성 및 양육 2. 초등 전이를 위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월령을 총 12단계(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세, 4세, 5세 아동)로 구분하고, 각 월령에 따른 발달 및 양육 촉진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 • 월령별 발달 위험 신호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음. •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III. 장애 부모 Q&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 부모들이 겪는 고민과 문제들을 Q&A 형태로 소개하고 있음.
부록. 장애 부모 양육지원 제도 및 관련 자료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별로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소개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전달 체계에 해당하는 지역별 기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4).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부모 힘 더하기. 목차

아동의 월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육아지침서의 활용 예시

자녀의 월령에 따라 발달 단계를 점검하고, ‘Red Flags’를 활용하여 장애인 부모와 지원 인력이 아동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 아동의 월령별로 총 10개 구간(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세, 4세, 5세)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 수준을 제시함.
- ▶ 장애인 부모 또는 장애인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인력은 해당 기준을 활용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 수준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 부모 힘 더하기] 육아지침서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104호